**제1차 실무위원회**

* **개요**

|  |  |  |
| --- | --- | --- |
| 기간 | 1997-08-27 ~ 1997-08-30 | |
| 장소 | 대한민국 > 경상북도, 경주 현대호텔(다이아몬드 홀) | |
| 주관 | 대한민국 > 경상북도,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국 | |
| 참가 | 4개국 26개 자치단체 75명 | |
| 중화인민공화국 | 헤이룽장성, 산둥성, 허난성 |
| 일본국 | 아오모리현, 니이가타현, 토야마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 교토부, 효고현, 돗토리현, 시마네현 |
| 대한민국 |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 러시아 연방 | 부랴찌아공화국, 사하(야쿠찌아)공화국, 하바롭스크변경주, 아무르주, 캄차카변경주, 사할린주 |

* **내용**

|  |  |
| --- | --- |
| ▷ 동북아공동체를 위한 연합의 실천사업 모색  ▷ 자치단체별 의안 발표(50여건)  ▷ 경제통상, 문화예술, 환경분야, 일반교류분야 등 분야별 토의   |  | | --- | | **▷ 당면현안 논의를 위한 실무소위원회(워킹그룹) 구성** • 연합의 연합공동의 실천 프로젝트 마련  •사무국 등 연합운영체제 개편 논의  •북한, 몽골 자치단체의 연합 가입을 위한 회원범위 확대 논의 | |

* **합의문**

지역의 공동발전을 지향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숭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의 회원인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자치단체의 실무대표들은 1997년 8월 28일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에서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 ‘97실무위원 회의를 개최하였다.

세계경제의 흐름이 글로벌화와 블록화라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동북아지역은 세계경제권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공통과제들에 대한 해결책 모색을 위한 지역간의 협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회원 자치단체들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을 추구하고, 나아가 미래지향적인 21세기를 열어 나간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동북아공동체를 위한 연합의 실천사업 모색」이라는 주제로 ‘96동북아지역자치단체회의에서 채택된 7대 공동과제를 중심으로 문화예술, 경제·통상, 환경, 교류일반분야로 의제를 나누어 깊이 있게 논의하였다.

그 결과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모든 자치단체가 능동적 실천사업 수행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 문화예술분야에 대하여

각종 포럼, 박람회, 전시회 및 학술적 연구활동에 관련된 모든 행사에 회원자치단체가 적극 참여하고 협조한다.

2. 경제•통상 분야에 대하여

러시아와 중국의 자원개발 및 투자가 확대되도록 협조해 나가고, 모든 회원이 경제교류 촉진을 위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별로 구체화된 사업계획을 사무국에 송부하여 상호 연계기능을 강화한다

3. 환경분야에 대하여

지구환경 보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자치단체간의 정보교환, 기술교류, 공동조사 등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4. 교류일반분야에 대하여

사무국 운영 문제와 공동과제 추진기구 설치 등 연합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현재의 사무국과 각국의 대표자치단체로 구성하는 실무작업반에서 합리적인 안을 작성하여 이를 ‘98총회 의제로 보고키로 한다. 또한, 북한 및 몽골 자치단체의 회원가입은 러시아 극동지역자치단체들과 일본 돗토리현이 주도하여 ‘98총회 시 가입을 목표로 전반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에 의견을 같이 한다.